

## 자폐성 장애아동 아버지의 존재론적 이해 : 특수교육과 후기구조주의 방법론

김 형 준\*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박사과정

곽 승 철\*\*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

### 《 요 약 》

---

이 글은 자폐성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한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 쓰였다. 이해를 위한 방법으로 후기구조주의의 한 갈래인 들뢰즈의 사유가 사용되어졌으며, 이에 따라 각 장은 들뢰즈의 사유를 표현하는 개념들로 구성되어졌다. 1장에서는 먼저, '문제화'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주어진 문제에 답을 구하도록 하는 과학적 연구에 대해 논의하고 그러한 연구에서 벗어나 문제 그 자체를 문제로 삼기 위한 한 방식으로서 장애아동 아버지를 대상으로 선택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이러한 논리적인 부분에서의 문제와 연결하여 문제가 구성되어지는 방법으로 '비자발성'과 '사건/의미' 개념을 제시하고, 연구의 실천적인 맥락에서 '소수자-되기'를 다룸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구가 그 자체로 연구 참여자의 삶을 표현하도록 하는 새로운 글쓰기의 실험이 되도록 하였다. 2장에서는 물질과 문화가 접하는 '표면'이라는 개념 안에서 삶을 구성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장과 그러한 사건들의 계열화와 층화로서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3장에서는 '-되기' 개념을 사용하여 아버지의 삶에서 아버지가 찾아내고 만들어낸 삶의 방식을 살펴보고 이를 확장하여 보편적 차원에서 '-되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짜기' 개념을 사용하여 연구의 외부성과 함께 작동하는 방법론을 '잠재성'과 '생성' 개념으로 연결 지음으로써 실험적 글쓰기로서의 특수교육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제어 : 자폐성 장애, 아버지, 가족, 질적 연구, 방법론, 후기구조주의, 들뢰즈

---

\* 제1저자

\*\* 교신저자(sckwak@kongju.ac.kr)

## 1. 문제화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한 글을 쓰는 데에는 그것을 표현하는 다양한 개념들 중에서의 선택이 요청된다. 하나의 글에는 때로는 매우 추상화된 이론적 개념이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과 밀착되어 있는 일상적 개념이 사용되기도 하는 것이다. 개념의 선택이라는 이 문제에서 어떠한 방식이 사용되었느냐에 따라 하나의 글은 일정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 방식의 다양성을 잊고 한 가지 방식만을 절대화하였을 때 글은 원래의 목적이었던 온전한 이해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예컨대 누군가의 삶을 이해하는데 극단적으로 이론화된 개념만을 사용하거나 반대로 단순히 일상적인 언어만을 사용한다면 삶으로부터 동떨어진 이해를 얻게 되거나 삶을 심층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에는 그것을 설명하는 다양한 방식들 간의 비교와 이를 통한 열린 소통의 가능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두 개의 대상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중 하나는 연구의 외면적인 것으로 장애아동의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 즉,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와 만나는 동안 얻게 된 것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 연구의 방법론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대상이 되고 있는 사유 양식, 즉 후기구조주의라는 담론 구성체<sup>1)</sup>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후기구조주의 사유와 특수교육 담론이 관계 맺을 수 있는 측면들이라고 한다면, 이는 결국 연구자가 연구를 구상함과 동시에 대상과 그 방법론적 구상이 맺게 되는 매개적 상태를 재차 대상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후기구조주의 사유를 이러한 이중적 위치로 다루는 것은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겠지만, 우선 연구 방법의 측면에 있어서 대상이라는 문제와 관계 지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과학적 연구에 있어 대상이란 대부분의 경우 ‘종과 유’의 논리에 따라 일정하게 위계화된 요인들로 조직된다. 예를 들어, 한 가족은 사회적 측면에서 일정한 지역이나 계층으로, 가족 구성원이라는 측면에서 아버지-어머니-자녀-친척 등으로, 각 개인의 차원에서 나이, 교육 수준, 양육 방식, 스트레스 정도 등의 요인들로 나뉘질 수 있다. 즉 대상은 분할될 수 있고 측정될 수 있는 외연도(extensivity)적인 성질들의 위계적인 조직화 속에서 일정한 값을 부여받음으로써 자신을 주장하게 된다.<sup>3)</sup>

그러나 한 개인-가족-사회 등에 대한 나눔은 두 가지 점에서 대상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 먼저 이러한 분석의 기법은 요인으로 선택되지 못한 것들을 배제시킴으로써 대상의 다질성을 잃게 하는 한편 시간에 따라 매 순간 변화하는 대상을 고정시킴으로써 대상의 위치를 얻음과 동시에 운동성을 잃게 한다. 결과적으로 조직화의 체계 속에서의 연구는 어떤 의미에서 대상을 잃게 되는 것이다(이정우, 2011a:

210-238). 이와 함께 선택과 고정은 그 자체로 인간이 대상을 지각하기 위한 인식론적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지는 만큼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걸음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측면 또한 가지고 있다. 그것은 대상의 선택과 고정을 위한 조직화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어떠한 전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전제가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로부터 암묵적인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대상을 조직화하는 전제는 대상을 선별하는, 다시 말해 가치가 더 있는 것과 덜 있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연구에서 전제하고자 하는 가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것은 다질적이고 매 순간 변화하는 운동 그 자체가 우리의 인식을 위해 등질화되고 멈춰잡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존재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전제된 것에 따라 가치를 확인토록 하는 어떤 주어진 문제의 답을 구하기에 앞서 그 전제를 연구의 대상으로 다루는 것, 즉 연구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문제화(problématisation)로 다가서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 요청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이 연구에서 장애아동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선택하게 하는 조건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연구의 대상으로서 아버지의 위치를 살펴보면, 가족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 있어 아버지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거나 부차적인 요인으로 다루어진다(김선영, 2008; 김예랑, 2012; 김진희, 2004). 예를 들어 일차적인 대상인 가족으로 시작해서 가족을 대표하는 아동-어머니 구성원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대부분의 경우 어머니)에 의해 표상된 여러 요인들 중 하나로 아버지가 다루어진다. 즉 여기에는 가족이라는 이름을 유지시키는데 있어 아동-어머니로부터 출발하는 요인들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점, 다시 말해 가족이라는 이름에 우리가 집어 넣은 이념들로부터 생겨난 문제를 더 핵심적인 것으로 다루고자 하는 의도가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도 그 자체 또한 대부분의 경우 다루어지지 않게 된다.

그러나 가족(또는 그것이 개인이든 사회이든)은 하나 또는 몇 개의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 존재만은 아니다. 그러한 관점은 마치 장애를 가진 한 인간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어떤 향이 더 중요한지 아닌지라는 문제가 아니다. 이와 반대로 그러한 '더와 덜'의 문제(Ansell-Pearson, 1999: 58-62)<sup>4)</sup>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러한 문제만을 만들어내는 조직화의 방향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실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또는 다루어질 수 없었던 부분과 그에 따른 방식들 즉 어떤 요인으로 분할되기 전, 누군가에 의해 표상되지 않은 아버지를 대상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기존의 문제들을 구성했던 조직화의 의도와 또다시 경쟁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기존의 문제들을 한 방식으로 포괄하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문제를 열어놓고자 하는 것이다.

대상과 문제의 관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뒤이어서, 이제 ‘다질적인 존재로서의 대상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한편으로 남게 된다. 즉 기존의 문제와 다른 새로운 (문제화로서의) 문제가 마련되어졌을 때, 이에 따른 새로운 방법(méthode) 또한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그 방법은 항들을 위계화하는 초월적(transcendance)인 전제로부터 나온 것, 즉 기존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닌 새로운 문제들이 구성되어지는 내재성(immanence)으로 연결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다.<sup>5)</sup> 따라서 얼마나 전제가 없는 환경에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방법은 대상과 함께 그 자체로 드러나야 할 일차적 조건이 되고,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 후기구조주의 사유는 방법이면서 동시에 대상인 이중적 위치를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구도에서 ‘문제는 어떻게 구성되어지는가?’ 가 연구에 있어 직접적인 물음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겠지만 앞서 언급하자면 연구에 대한 ‘비자발성’과 ‘사건/의미’로 구성되는 삶이라는 개념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 전제하고 있는 논리적인 부분과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의 관계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 살펴보게 될 부분은 연구의 외부에서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것들로서 이는 연구의 실천적인 맥락으로 연결된다. 즉 하나의 연구를 구성하는 것들 중 하나로서의 연구자가 다루어진다. 다시 말해 그것은 연구자가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때 그러한 연구에 언제나 따라오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것이다.

전제를 문제화하는 것, 그것은 곧 기존의 질서, 체계, 지식으로 구성된 조직화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것으로서 ‘비정확한 본질’<sup>6)</sup>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지식체계로 대표되는 학과체계를 가로지름으로써 학과의 경계를 흐리게 하고 새로운 글쓰기 방식의 실험을 통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내고자 한다(이정우, 2008: 50-52). 이를 통해 연구자는 학과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연구의 필요 없음으로, 때로는 소통의 문제로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도덕성의 문제로 기존의 지식체계로부터 거부됨으로써 소수자의 자리에 위치 지워지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소수자-임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현실의 차원에서 존재론적 분절과 위계화는 언제나 소수자를 만들어내기에,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들을 고정시키고 중심을 상정하여 위계화시킴으로써 고착되지 않도록 기존의 존재론에서 배제된 것, 즉 환영(simulacre)들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글쓰기를 통한 연구자의 ‘소수자-되기’의 실천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소수자-되기의 실천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현실과의 일정한 관계가 요구된다. 우리의 삶이 현실이라는 바탕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실과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와의 면담과 가족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이 연구가 다루고 있는 현실은 곧 아버지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 개념들과 그에 따른 삶의 방식들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은 인간에게 줄곧 이해되어야 할 무엇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인간의 사유를 자극해왔으며, 그 결과 각각의 문화와 언어에 따라 다양한 사유의 방식들이 우리에게 남겨졌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사유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는 데에는 바로 지금의 우리 시대에 대한 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점에서 고·중세의 형상철학과 근대의 주체철학 그리고 탈근대로서의 구조주의를 종합하고 넘어서 새로운 존재론으로 현대라는 세계를 직시하고 있는 들뢰즈(/가타리)의 사유가 다양한 방향들을 숙고케 하는데 유용할 것이라 생각한다.<sup>7)</sup>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이 연구에서 연구자가 자폐성 장애아동의 아버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연구가 그 자체로 연구 참여자의 삶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연구의 가능한 방식들 중 하나로서 들뢰즈(/가타리)의 존재론을 바탕으로 연구 참여자와 연구를 실행하는 연구자 그리고 연구의 형식이 어떠한 공통의 공간을 통해 서로 섞이는 새로운 글쓰기를 실험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소통의 방식에 있어, 비장애인에 대해, 또 성인에 대해서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자폐성 장애아동을 자녀로 둔 한 아버지의 삶을 소수자-윤리학의 존재론적 바탕인 후기구조주의 사유의 개념들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둘째는 그러한 이해 속에서 보편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성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 II. 표 면

삶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장에서 살펴볼 한 아버지의 삶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 살펴볼 것인가에 따라 각기 상이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들뢰즈는 물질적 차원을 벗어난 정신적 삶도 반대로 물질적 차원으로 환원되는 세계도 아닌 그 두 차원이 만나는 ‘표면’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라고 말한다(이정우, 2011b: 292-293). 인간은 그 표면에서 현실이라 불리는 사건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완전히 고립된 하나의 사건을 상상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잠재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이미 서로 이어져 있기에 사건은 그 자체로 의미가 된다. 그리고 이런 이어짐들이 모여 장을 형성하기도 때로는 층을 형성하여 대립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는 먼저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한 장애아동 아버지의 삶을 구조적이고 정적(靜的)인 모습으로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삶을 구성하는 사건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를 위해 연구자는 우선 가족들의 삶에 가까이 다가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이든 함께 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12년 9월부터 아버지와 면담과 전화통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한 캠핑이나 식사를 통해 사건들에 다가서고자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알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이러한 다가서기는 곧 연구자의 ‘비자발성’이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들뢰즈(Deleuze, 1964: 277)는 이러한 ‘비자발성’을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지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그래서 “거미줄 꼭대기에 올라앉아서, 강도 높은 파장을 타고 그의 몸에 전해지는 미소한 진동을 감지할 뿐”인 거미로 표현한다. 즉 연구자는 가능한 자신이 계획하지도 미리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비자발적(involontaire)으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현실에 부딪침으로써 이미 짜여있는 문제들 안에서 연구자가 이미 알고 있는 답들을 확인하고 조직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문제를 드러내고, 초월적 진리가 아닌 개별적 진실에 다가설 수 있다. 따라서 우선은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첫 마주침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후의 진행을 이해하는데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 1. 마주침

연구자: 어떻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좀 이렇게,, 먼저 생각하셨던 게 있으신가요?

아버지: 그렇게 없었죠.(웃음)

연구자: 전혀 없으셨나요?(웃음)

아버지: 어떤 부분에 하게 될지 알지도 못했고, 그런데 뭐,,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니까,,

면담을 시작하면서 나눈 첫 대화이다. 연구 참여자(이하 P)에게는 연구의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진 상태였으며, 따라서 P는 장애아동의 아버지로서 면담을 할 것이라는 정도의 예상만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자 또한 연구 주제를 설명하는 것에 있어 일종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장애아동 부모와의 면담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려고 하는데 있었다. 때로 이 부분은 부모에게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지 않은 상태로 연구 주제를 설명하고 연구윤리 지침(연구와 녹음에 대한 동의, 면담 계획 등)을 알린 후 가능한 자발적인 응답을 듣기위한 질문을 함으로써 새로운 주제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한 가지 면담에 있어 연구자가 설정한 방향은 면담이 자칫 장애아동 자녀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을 막고자 P에게 ‘아버지의 삶’을 중심으로 이야기 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면담은 P의 회사에서 이루어졌다. P의 부인(이하 W)과 아들이 함께 있었는데

면담이 시작되기 전에 W는 웃으면서 면담에 방해가 되지 않겠다고 하며 아들과 함께 야외로 나갔다. 면담의 흐름상 따로 자기소개를 부탁하지 않았기에 면담내용을 토대로 P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46세의 P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다. 두 자녀 중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 현석(가명)이가 자폐성 장애아동이었는데, 현석이의 장애 발견 당시에 대한 인용을 통해 P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제 첫째 아이 낳고, 둘째 아이 낳으면서, 낳고 처음엔 괜찮았거든요, 세 살 때까지는 괜찮다가, 이제,, 우리 현석이가, ... <중략> ... 그래서 인제 우리,, 현석이가 한 네 살 때부터 그러니까 대전,, 올라오면서 현석이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었어요, 말도 잘하고 그런데 우리로서는 영국에까지 이렇게 뭐 피검사 보내본 결과는 인제 후천성으로 인제,, 뭐 접종, 이런거, 그,, 어릴 때 접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인제 문제로 해서 저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되고난 이후부터 그러니까 대전 온지도,, 이천,, 일년도 오월달에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인제 현석이가 문제 있다는걸 알게 됐어요, 그 때,, 인제 알고, 그때가 인제 우리 여기 있었어요, 〇〇동, (웃음) 요쪽에 〇〇동 요 밑에 아파트 쪽에 있을 때에 알면서 인제 그 알게 된 것도 인제 병원에 가보면서 평상시하고 애가, 첨에는 말을 잘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을 안하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꼈었죠, 저희들도, 그래서 해보니까 인제 저런 인제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P는 현석이의 장애가 후천적이라는 사실과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현석이는 현재도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비해 듣고 이해하는 것에서는 다양한 행동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부름이나 ‘옷 입어야지’, ‘밥 먹어야지’ 와 같은 제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어리광을 부리다가도 오래 걸리지 않아 타일러지곤 하였다. 즉 현석이는 심각한 문제행동을 가진 자폐성 장애아동은 아니었으며, 복잡하지 않은 의사소통은 가능한 아동이었다. 한편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차를 타고 식당으로 이동하는 중에 평소 다니지 않던 길로 들어서자 옆에 앉아 있던 어머니에게 불안한 표정으로 때를 쓰기도 하였다.

P에 대한 첫인상은 건강함과 강인함이었다. P는 매우 단련된 신체를 가진 것으로 보였다. 면담을 통해서도 P가 운동을 무척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주말이면 아들과 함께 자주 운동이나 야외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인제 평일 날은 사실은 힘들어요, 저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주말만 되면은,, 요즘은 애 데리고 나갑니다 저는, 야까도 (자동차)뒤에 보면은 거치대, 자전거 타고 애하고 같이 인제 자전거 아직까지는 이렇게 도로 있는 데는 타기 위험하니까 자전거도 인제 제가

17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4권 4호)

가르쳐서 이제 밖에서 이렇게 안전 지역에 가서 자전거도 타고, 뭐 산에도 주말마다 산에도 데리고 다니고,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이렇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인제 잔디밭 이런데서 같이 고기도 구워먹고 애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 개인적인 삶은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없어요,

P는 자신의 내면적 성향이 아들 현석이의 장애로 인해 변한 것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이야기 하였다. 여기서는 P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기위해 변하기 전의 성향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다.

내가 그냥 현석이가 정상적이었다면 저도 쯤 남들 한테에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저도 자존심 또는 어찌보면은 자만심이에요, 그런게 쯤 많았었어요, 저도, 그때에, ... <중략> ... 스스로 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정도로 제 혼자에 생각이 이렇게 많은, 저 스스로에 쯤.. 뭐랄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될 수 있다, 또 잘돼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뭐 제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활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면은

그 당시에는 쯤 뭐랄까 쯤.. 헛된 욕망도 있었고, 또는 어떤 쯤.. 뭐 욕심? 어찌보면 욕심 이렇게 있었다면

인용문에서 P는 현석이의 장애가 있기 전 자신의 모습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녀의 장애를 알게 되면서부터 겪게 되었던 힘든 시간들 동안 P는 많은 변화를 만들어냄으로써 현재의 삶을 ‘행복’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어.. 나름대로 인제 다른 쪽에 돌파구를 찾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깨우치고 또.. 어찌 보면 인제 체념도 하게 되고 또 반대로 또 이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그런 또 책임감 이런거 플러스 그리고 인제 우리 또 나름대로 가족으로서의 우리 인생도 있으니까 그 삶을 어떻게 잘 살아야될지 그걸 느끼면서 다시 인제 어.. 쯤 다 생활잘하자 이런쪽으로 하면서 어.. 지금은 사실 상당히 행복해요, 뭐 재 저렇지만은..

그러니까 이.. 장애아이를 가진 부모.. 가족은 제가 보기에는 여자가 잘해야 하는거 보다는 남자가 제 생각에는 뭐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이 도와준다는 또는 같이 가족으로서의 같이 가져야 될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행복한 거지 그 장애아가 있다 해서 행복하(지 않)고 이런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거를 서로 간에 나누어주고 서로 간에 자기 해야 될 일을 한다면은 오히려 그게 더 삶을 살아가는데 더 행복하고 더 즐거움이 될 수 있다는게 제 생각이요,

P에게 ‘행복’은 곧 삶의 기예(技藝, technê)의 문제이다. 주어지는 것으로서가 아닌 만들어가는 것으로서, ‘나’라고 말해지기 이전(전개체적-비인칭적, preindividual

-impersonnel) 차원<sup>8)</sup>으로의 탈주와 현실화를 반복한다. 여기에서 P는 여자가 잘해야 하는 것 보다 남자가 어떠해야 한다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P는 자녀의 장애로 겪고 느끼게 된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 중에서 장애아가 있던지 있지 않던지 행복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삶의 방식을 찾아가고 있다.

## 2. 사건들

앞 절에서는 면담과정에 대한 기술과 면담 내용을 통해 ‘아버지’라는 한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즉 신체에 대해(유기화, organisation), 이름-자리에 대해(기표화, signifiante), 자신에 대한 생각에 대해(주체화, subjectivation), 한 존재는 이러한 세 가지 -화(-化, -ation)를 통해 층화(stratification)된다(이정우, 2008: 37-38). 그러나 한 인간의 매일의 삶을 구성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건이다. 인간은 사건과 더불어 살아가며, 사건은 곧 의미 그 자체 즉 ‘사건/의미’가 된다. 사건은 물질과 문화가 접하는 표면에서 발생하여 나타났다가 곧 사라지지만, 계속해서 차이를 동반하며 반복된다(이정우, 2008: 32).<sup>9)</sup> 이 절에서는 P와 관계된 사건들의 계열화(와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를 통해 ‘아버지의 삶’을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 1) 개인의 삶: 섞여가는 장

면담 내용으로부터 ‘직업’, ‘여가’, ‘가정’, ‘친구’가 개인의 삶을 구성하는 영역으로 도출되었다. 네 영역은 각각 ‘아버지’의 삶을 구성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장(場, field)을 구성한다. P에게 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은 잠재적이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지만, 가정이라는 영역에 비해 가능성은 닫혀있는 듯 보였다.

그런데 뭐 아까 물어봤지만 언제 그런 남자의 삶 언제 그렇게 가다가 지금은 사실은.. 제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남자의 삶으로서의 남자의 꿈은 지금 접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아까 언제, 쯤 말이 애매할지 모르겠지만은 남자의.. 남자로서의 한 개인으로서의 제 삶의 희망이랄까 꿈이랄까 또는 제가 꾸어왔던 이런 여러 가지 삶들은 사실 다... 한켠에 밀어 넣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가정을 통해 다른 영역의 사건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가정과 다른 영역의 사건들이 뒤섞여 나타나기도 한다. 위 인용문에서 P가 언급하였듯이 “애매할지 모르는” 부분들이 만들어진다. ‘남자-개인으로서의 삶’이 접혀 들어가고 여러 장들이 서로 섞이는 무언가 새로운 삶(의 방식)이 만들어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P는 현석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수영이나 등산 등의 여가를 보내기도 하였다. P와의 두 번째 만남은 P의 회사 안에 있는 넓은 잔디밭에서 가족과 함께 캠핑을 하며

이루어졌다. P는 몇 차례 회사 건물로 들어가 업무를 보기도 하고 회사동료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기도 하면서 식사를 준비하였다. 저녁 식사를 마칠 즈음 P의 친구가 찾아왔는데 P와 가족과 친구는 이러한 만남에 익숙한 듯 보였다. 친구와의 만남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은 장애아동 부모에게 제한적일 수 있다. 제한적인 시간은 많은 경우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흐름을 만들어 내곤 한다. 이와 다르게 이 캠핑이라는 사건에서는 제한적인 시간들이 P의 삶을 구성하는 네 영역과 함께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섞여가고 있었다. 회사라는 공간에서,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며, 친구를 만나며, 또한 P는 현석이를 회사에 데리고 가기도 하였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한테 감히 이야기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도 한 번씩 현석이를 회사에 데려와요, 데려와서 사람들 하고 있는데도 같이 있게 하고, 그런 저는 제가 이렇다는 것도 나타내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거는 인제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인제 애도 몇몇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내놔야 애도 몇몇해지고 부모도 몇몇해지고 그런데,

한편 ‘장애아동의 아버지’ 라는 이름은 직업 영역에 질적인 변화를 만든 것으로 보였다. P는 한 개인으로서, 직장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주체화)이 ‘개인-욕심’에서 ‘조직-배려’로 변화하였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뭐 일에 대한 성취감 이런거 물론 인제 없지는 않아요, 지금은 없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게 다른 부분으로 개인적인 욕심에서 어찌보면 조직이나 다른 사람 배려하는 쪽으로 저는 바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 인제 현석이를 통해서 많이 저는 배웠다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는,

## 2) 계열 1: 사회의 변화

P는 장애에 대한 사회의 변화에 긍정적이었다. P에게 사회의 변화는 영화 ‘말아톤’이나 자폐증을 가진 수영선수 학생에 대한 방송 등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 현석이를 배려해주려는 또래들이 있는 통합교육의 현장에서, 신체적 장애에서 자폐성 장애나 지적장애와 같은 발달장애로의 사회의식의 확장으로 드러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말로 정리되고 있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괜찮아졌어요, 사람들이 저런 아이가 있다는 걸 인제는 인식을 많이 하고 저런 애가 저럴 경우에는 뭐 대강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좀 생각을 많이 하더라구요, 애(의 경우)는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서는 괜찮았어요,

이러한 사회의식의 변화는 두 가지 문제들에 연결되고 있었다.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것으로, P의 삶의 방향에 연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P는 ‘한 이년 전’을 기준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음을 이야기 하였다. P는 아래 두 인용문 중 첫 번째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으며, 두 번째에서 달라진 미래에 대해 말하고 있다.

(1) 무서, 좀 두려워하고 제 마음에 좀 아직까지 한켠에 있는 짐이랄까 그게 있는게 내 사후에 저 아이를 어떻게 할까? 이게 젤 걱정이라고, 제가 있을 때는 저는 걱정 안 해요, 왜냐 하면 제가, 뭐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은행 돈을 훔쳐서라도 음? 당신들하고 우리 가족들은 진짜 편하게 해주겠다, 하고 싶은거 다 하도록 해주고 내가 어떻게든 그렇게 할 거니까 걱정마라, ... <중략> ... 인제 제 사후 또는 제가 인제 나이가 먹어갈 때에 제가 지금은 아직까지 힘이 있고 제가 인제 애하고 같이 놀아주지만은 칠십 팔십 구십 또는 이제 제가 죽고 난 뒤에 과연 이 애를 누가 돌봐줄 수 있는가, 우리 인제 위에 딸이 있는데 그 누나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부모하고 또 형제는 또 다르더라고, 저도 인제 제 형제들 있어보니까, 절대 형제가 볼 수도 없고 또 저는 또 딸한테 또 짐을 지우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고 뭐 이런 말 하면 다 알겠지만은 우리 장애아를 갖고 있는 부모들은 다 자기가 죽을 때 애도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2) 그러다가 인제 한 이년 전인가 그때부터 인제 어떤 또 생각을 갖게 되었냐 하면은 사회란 것은 계속 변동을 하고 또 좋은 쪽으로 올라가니까 특히 인제 우리나라도 복지 이런 쪽으로 잘되고 또 우리,, 현석이 같은 아이가 제가 보니까 갈수록 늘어나는 거 같아요, 물론 옛날에도 있었지만 옛날에는 그거를 몰라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 방치하는 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복지사회가 갈수록 또 그런 애들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인제 제 스스로도 그렇고 와이프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 사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자, 그 애는 그 뒤에는 또 그 애가 겪어야 되는 몫일 수 있고, 다만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힘이 있을 때에 그 아이가 충분히 편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 생각에는 아직 제가 그래요 와이프한테, 돈을 많이 모아두는 거다, 모아둬서 그 애가 예를 들면 첫째 애가 그 돈을 관리하면서 그 애가 어떤 시설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는 안 그래도 국가에 충분히 그거를 보호를 받으면서도 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십년 이십년 또는 뭐 사십년 오십년 뒤까지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 애 인생은 또 인생대로.

그러나 현재에 있어 사회의 변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으며,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 구체적이고 현재진행 중인 문제에 있어 사회의 변화는 따라와 주지 않고 있었다. P는 현석이의 진학 결정이라는 문제를 통해 이 점을 이야기 한다.

그 기대치는,, 따라오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뭐 제 기대치라고 해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뭐 총괄적으로 돌봐주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게,, 들지만은 그러나 인제 어,, 들고 또 최근에 보면은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 현석이를 초등학교이고 인제,, 지금은 인제 중학교 때는 제가 특수학교를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와이프하고 그렇게 확정을 했었어요, 보면은 우리가 시설이 있고 또는 제도가 있더라도 그 제도와 시설을 이용하는 거, 그 운영하는 것은 사람 인데,, 사람의 인식이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특수학교라든지 또는 인제 복지관에 있는 그 교사라든지 그 좀 운영자들은 가보면은 생각이 좀 가능하면은 장애아동 또는 장애아 부모들을 위해서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여기에서 우리는 영화 ‘말아톤’ 이 개봉되지 않았고 자폐증 수영선수 학생도 미디어에 나오지 않은 세계를 상상할 수 있다. 반대로 ‘말아톤’ 과 같은 영화가 몇 편이나 더 인기리에 상영되고 더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활동하는 자폐성장애크인이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세계를 상상할 수도 있다. 아니면 단지 P가 모르는 곳에서 이미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음에도 단지 P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P가 자신의 미래와 현석이의 진학에 대한 현재의 결정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상을 통해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사건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사건들의 계열화가 일정부분 자의적이라는 점에 있다. 즉 의미는 사건을 계열화하는 주체의 욕망과 권력에 관계된다(이정우, 2011b: 146). 주체의 그런 힘들이 모여 층을 형성하고 경계가 그어진다.

### 3) 층들: 얽혀있는 문제들

P가 겪었던 사건들 중 부모모임, 친척, 학교(교사)가 문제로 부각되었다. 먼저 부모모임에 대해 P는 부정적인 점들을 언급하였다. 부모모임이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의 삶과 권리를 위한 ‘모임’ 이지만 P는 그곳에서 어떤 ‘서글픔’ 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그리고 ‘특이한’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곳에서는 장애아동 부모라는 층이 형성된다. 이에 대해 P는 ‘형식적’ 이라고 표현하면서 다른 방향을 이야기 한다.

예를 들면 어떤 뭐 농촌 체험인데 그 우리 애들만 거기 가서 하다보면은 그게 형식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는 인제 뭐 그렇게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 나름대로에 생각을 갖고 애하고 같이 이렇게 공동,, 뭐 같은,, 활동을 하면서 아이하고 체험할 수 있는게 더 좋지 않냐 다른 단체 모여서 이렇게 가는 것 보다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은 아직 연대라든지 부모연대나 또는 그런 단체 활동에는 좀 지금은 참여를 안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별로 할 생각은 지금은 없어요,

다음으로 연구자는 P에게 친척들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였다. 친척들과의 관계에는 복잡하게 얽힌 기대들과 그로 인한 상처들이 있었다. 그것은 마치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상처를 받는 것과 같은 아픈 것처럼 느껴진다. 가족이란 동일성은 신체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일까. 그곳에는 타인이 다가서기 어려운 무엇인가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에 대한 인용문을 나열하는 것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일단은.. 보편은 가족한테 받는 상처가 가장 심해요, 친척들이나 가족들한테, 왜냐하면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 뭐 제 친구라든지 또는 제가 어떤 업무로 만났든 안그러면 다른 사회 활동을 해서 만났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제가 기대도 안하고 그 자체를 기대도 안하고, 그 사람들은 뭐 어떤 이야기를 하든 아예 흘려버리면 되는데, 이 가족들이 현석이 대한 대응에 따라서는 상처를 받게 되더라고요.

친척들한테 드러내는게 더 싫어요, 제가 왜냐하면은 친척들은 그렇게 하면은 뭐 당장 이제 우리 본가 쪽에 인제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한테 가서 인제 뭐 "아이고 뭐 큰애 아들이 뭐 그렇더라," 이래버리면 어머니가 이제 좀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니까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이 더 말한마디에 상처를 받게 되고요,

아마 기대 또는 뭐 바램 뭐 이렇게 있어서 오히려 친척들한테는 더 쉽게 또 이해 잘 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은 아예 기대도 안하고 뭐 이해 하던 안하던 상관없이 자기를 드러내 놓는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저는 심, 뭐 심하게 나더라고요, 저는, 심, 막 와이프도 오히려 외부사람 보다는 오히려 가족들한테 더 많이 상처를 받아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

마지막으로 P는 학교(교사)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여기에서 P는 '직장' 으로서 기능하는 학교(교사)를 문제화한다.

물론 안그런 선생님들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직장으로 생각하는거지, 직장으로 생각하는거지 물론 뭐 좀 애매하지만 그런데 직장으로 생각하지만은.. 그 애를 위해서 또는 그 부모를 위해서 자기가 뭐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은 잘 안하는 거 같아요,

이에 대해 P는 교사의 출산·육아 휴가·휴직과 관련된 사건을 예로 설명하면서, 이 점을 좀 더 분명히 한다.

초등학교 특수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3월달에 개강이자나요, 보통 개학이자나요, 그러면은 3월 달까지는 학교 다녀요, 새로운 선생님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산전 산후 휴가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명에서 삼개월 사개월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잠깐 방학 때 다시 복귀했다가 방학 때 복귀하면 수업안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시작할 때에 육아휴직을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조금의 이득을 위해서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던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신경을 안쓴다는 거죠, 오로지 그 사람은 직장인으로서 또는 자기 직장 다니면서 자기 얻을 수 있는 이득만 생각하는 거지, 그,, 아이들 생각하는,, 저도 뭐 그게 뭐 직장다니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 하지만은 때로는 그렇지않은 그런 일을 하는 분은 그래도 다른 사람들하고는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더 행복을 느끼고 더 삶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제가 본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이 오히려 더 많았어요.

그러나 이 연구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학교(교사)의 이득이나 자질과 같은 가치론의 문제가 아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가 무수한 맥락들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문제들 안에서 여러 소수자들이 서로 형성한 층들에 서로 부딪치며 서로를 밀어내고 서로에게 상처 낸다는 것이다. 장애인으로, 여성으로, 아동으로, 노동자로. 이미 주어진 문제의 틀에 따라 점점 더 고착화되어 간다. 따라서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문제 그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 즉 ‘-되기’를 하는 것이다.

### III. 되 기

2장에서는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층화의 세 가지 측면, 즉 유기화, 기표화, 주체화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전개체적-비인칭적’이라는 개념을 통해 탈주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는 한편, ‘사건’ 개념을 바탕으로 좀 더 폭넓은 이해를 시도하였다. 이제 이 장에서는 앞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던 탈주의 개념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하여 ‘-되기’ 개념을 통해 면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앞으로 사용될 개념들은 일상에서 사용되는 용어들과 어느 정도 유사하면서도 상이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좀 더 명료한 진행을 위해 이 연구의 존재론적 바탕인 되기의 존재론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인간은 신체를 가진 존재로서 생물학적으로 유기화되고, 사회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국적, 성별, 직위와 같은 기표가 붙게 되며,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가짐으로써 스스로를 내면적으로 주체화하는 일정한 존재 방식을 통해 존재하게 된다. 되기의 존재론은 이러한 존재 방식에 대한 인간의 물음으로부터 시작된다.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우리는 우리를 규정하는 이런 존재 방식을 넘어

서려고 한다. 새로운 삶을 꿈꾸고 욕망한다. 욕망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준다. 따라서 들뢰즈(/가타리)의 ‘욕망’은 개인의 심리적 속성이나 기능을 나타내는 심리학적 개념이 아닌 생명체로 기능하는 모든 것들의 생성을 나타내는 존재론적 개념이다(이정우, 2008: 20). 이러한 다른 삶으로의 욕망을 이 연구의 존재론적 바탕인 들뢰즈(/가타리)의 사유에서는 ‘되기’ (devenir, becoming)로 개념화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되기를 할 것인가가 될 것이다.

앞서 ‘아버지’를 이해하기 위해 유기화, 기표화, 주체화라는 세 가지 측면을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기표화와 주체화에 대응하는 탈기표화 및 탈 ‘주체’화로서의 분자-되기를 다루고자 한다. 분자-되기는 곧 소수자-윤리학으로의 진입을 뜻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분자’-되기인가? 분자-되기를 다루면서 그 반대의 개념으로 제시되는 것은 몰(mole)<sup>10)</sup>이다. 몰은 하나의 단위/덩어리로 취급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개념으로, 예를 들어 한 가족, 한 직장, 한 국가, 한 학교 등은 몰이고 그 안의 구성원들은 분자들이다. 몰은 분자들을 평균화/균일화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지만 분자들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각각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분자들의 욕망이 존재론적으로 일차적이고 그 위에 몰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분자들의 욕망에 의해 몰에는 언제나 ‘탈주’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몰’과 ‘분자’ 즉 바꿔 말해 ‘존재’와 ‘생성’을 대립하는 관계로 파악하지 않아야 한다. ‘리좀(rhizome)’<sup>11)</sup>은 그 자체로 가치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몰’은 무조건 나쁜 것이고 ‘분자’는 좋은 것이라는 식의 가치론적 이분법은 오해를 만들어 낼 뿐이다. 즉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어떠한 되기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다.

## 1. 분자-되기

먼저 분자-되기의 개념을 통해 두 개의 인용문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여기에서 P는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가정과 직장이라는 몰을 생성하는 분자들의 욕망이 어떻게 부딪치게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몰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무엇인지 이야기 한다. 첫 번째 인용문은 가정에서의 희생-희망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직장에서의 체념-배려에 대한 내용이다.

(1) 그 희생이라는게 어,, 나를 버려두고 또는 내가 우울하고 내가 힘들면서 또는 내가 슬프면서 하는 희생은 아니구요, 그게 저는 즐겁고 그게 저한테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유일한 또 어쩌보면은 힘이고 또 희망이고 이래서 인제 그런 어쩌보면은 저는 인제 와이프한테도 어제 이야기 했지만은 나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다, 그런 희생적인 삶이, ... <중략> ...

그래서 우리,, 뭐 다른 장애아동을 데리고 있는 또는 장애아를 뭐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아버지들은 저는 대부분은 같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 자기 자신을 아버지로서의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은 가족의 행복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기 생활을 찾는다면은 가족,, 자기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가족은 힘들어 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주말에도 업무 때문에 뭐 소위말해서 골프 치러 다니다던지 또는 인제 다른 사람 만나다든지 이러면은 와이프가 애를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럼 와이프는 일주일 내내 애보다 토요일 일요일 날에도 애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 제 생각에는 그게 불만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가족들 하고 저한테도 불만이 생기고 그럼 저도 또 불만이 생기고 그럼 서로가 관계가 멀어질 수 있거든요,

(2) 지금은 그런거 보다는 어,, 뭐 소위 그런 욕심이나 욕망 이런거 보다는 내가 어떻게 일을 하거나 더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어떤 단체라던지 조직이라던지 또는 우리 부서라던지 회사가 잘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제가 힘을 쏟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마인드가 좀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는 개인적인,, 거였다면은 지금은 좀 조직적이고 다른 사람들 배려하게 되고 다른 사람 또, 왜냐하면은(웃음) 어찌보면은 인제,, 저는 체념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사회에 대해서 체념이 많이,, 체념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은 뭐냐하면은 다른 사람들 많이 배려해준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중략> ... 지금은 반대로 아유,, 내가 좀 더 도와주지, 안 그러면, 내가 조금 피곤하지 안 그러면 내가 좀 (쫓)이번엔 쬐주지, 이러면서 그 되는게 제 생각에는 현석이 통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하고 융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는 배웠다 생각해요, 왜, 제가 가장 밑에 어찌 보면 절망을 해봤거든요,

위 두 인용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P의 표현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P는 희생, 체념이라는 일상생활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강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희망, 배려라는 단어로 연결되면서 맥락 상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희생-체념과 희망-배려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P는 일종의 삶에 대한 역-설(para-doxa)의 자세로 새로운 방식의 삶을 만들어간다. 역-설은 그 시대의 상식과 양식을 전복시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의 현실을 하나의 현실화로 가지는 잠재성의 차원으로 들어가 새로운 독사(doxa)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즉 분자-되기는 단순히 자신의 동일성을 지키는 것이 아닌 분자들 간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동일성을 변형시켜나감으로써 물을 유지시킨다. 따라서 그 물은 어디까지나 생성의 바탕위에서 계속적으로 변이하는 물이 된다. P는 또한 희생-체념이라는 역-설에 이어 ‘자기 생활을 찾는다면’ - ‘욕심이 없다는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다시 한 번 ‘나’를 이루는 경계를 흐린다. 이러한 삶의 방향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일까. 이에 대해 P는 “가장 밑에 어찌 보면 절망을 해봤거든요”라고 말한다. 어찌 보면 절망이라고 할 수도

있는, 자신이 겪어온 삶의 가장 밑에서부터 상식-양식(sens commun-bon sens)과는 별로 관계없는 희망으로 누군가의 삶이 만들어진다.

## 2. 소수자-되기

이제 이 장의 마지막 영역인 소수자-되기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이 연구의 맥락에서 소수자-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이를 바꿔 말하면 장애아동-되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아동-되기는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다. 먼저 물질 비장애-성인이 물질 장애-아동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불가능하기도 하고 혹 가능하더라도 이것은 물질 동일성이 서로 자리만 바꾸는 것으로 소수자-되기와 정확히 반대되는 것이다. 되기는 고착화된 동일성들 사이에서 성립하는 차이의 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다수자가 소수자를 도와준다거나 베푼다는 식의 이해 또한 오히려 동일성들의 체계를 더 고착화시킬 뿐이다. 나아가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는 것이다(이정우, 2008: 213-214).

그렇다면 왜 ‘소수자’-되기를 하게 되는 것일까? ‘다수자’-되기는 없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앞서 1. 문제화에서 언급한 존재론적 분절과 위계화에 따른 정치적-윤리적 맥락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다수자’는 ‘다수자-이기’를 통해 기존의 분절과 위계화로 이루어진 동일성을 더욱 확고하게 할 뿐이다. 따라서 ‘다수자’의 ‘다수자-되기’는 없다. 즉 일반-장애, 어른-아이, 남성-여성이라는 동일성의 체계가 존속된다는 것은 기존 권력에 순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의 차원에서 소수자가 생겨나고, 그 소수자가 억압 받는 한 소수자-되기는 정치적-윤리적으로 의미를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 모든 되기에 대한 보편적 지평으로서의 ‘소수자-윤리학’이 된다(이정우, 2008: 219-224).

이제 지금까지 논한 소수자-되기를 P와의 면담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P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소수자-되기는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다. 그것은 기존의 동일성의 체계로부터 ‘바깥으로 나가기’를 통해 사회와 ‘나’와의 분절을 흐리게 하고, 그에 따라 마주쳐오는 어려움에 부딪쳐 나가는 것이다.

P: 인제 우리 스스로가 인제 처음엔 절망에 빠졌다가 다시 인제 와이프하고 저하고도 한게,, 인제 저 같은 경우가,, 와이프는 인제 그걸 인정을 안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야 된다, 애가 그렇다는 걸 인정을 하고 오히려 인제 와이프는 더 이상 인제 좀 바깥 출입을 삼가 할려고 그랬지만은 저는 오히려 반대로 더 나가자 더 나가야된다 이래서 모 제가 거의 뭐 하다시피 해서 거의 그 때 지금도 좀 그렇지만은 일주일에 두세번은

꼭 외식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면은 그 당시에 현석이는, 지금은 또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당시에는 네 살 다섯 살 때 밖에 나가면은 애가,, 소리로 많이 지르고 때를 많이 써요, 그리고 또 울기도 많이 울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이렇게 많이 받지, 그래서 첨에는 사실은 인제 이게 음식점에 가면은 가능하면은 방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예약을 해서 그 방을 우리가 들어가서 있으면은 좀,, 그러면서 차츰 차츰 이제 밖에 나오고 이래 됐는데, ... <중략> ... 근데,, 어 그렇게 되다가 인제 그게 시간이 흘러 갈수록 지금은 별로 저희들은 인제 뭐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 안 해요,

연구자: 자꾸 여러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P: 그렇지요, 여러번 하지,, 뭐 지금도 사실은 뭐 한번씩 가다보면 다른 사람들 눈을 의식 할 때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데,, 뭐 그렇게 생각 안하게 되고 그리고 인제 뭐 저는 인제 와이프하고도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현석이를 수치스럽게 하거나 수치스럽다 생각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한테 할 때에 내몰 때에 좀 망설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현석이가 말은 못하고 뭐 그거를 인지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한다면 현석이는 장차 어떻게 될 거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몇몇하게, 뭐 사람들 하고 이야기 하다가 또는 이제 저도 직장생활을 생활하니까 뭐 이렇게 외부사원들을 만나서 이야기 하다보면 인제 아이들 이야기 하게 되거든요, 나이가 그리하면은, 그럼 우리 아이는 장애가 있다고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면서 제 스스로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 애를 스스로 뭐 문제 없,, 문제는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몇몇하게 애를 소개하고 또 내놔야 저 애도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물론 인제 뭐 자기가 주관적으로 살아가든 안 살아가든 간에 자기도 생활하는 거지, 제가 저 애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 다음에 저 애를 뭐 다른데 속여서 하는 건 이렇게 제가 숨긴다면은 저 애 인생은 또 다른 또 생활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지금까지 살펴본 되기로부터 두 가지 방향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다룰 방향은 되기를 통한 ‘바깥으로 나가기’가 어떠한 곳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즉 이것은 ‘미래’에 대한 것이다. 먼저 사건의 측면에서 살펴본 ‘II. 표면, 2. 사건들, 2) 계열 1: 사회의 변화’의 인용문과 위 인용문에 나타나고 있는 ‘미래’에 대한 P의 생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 애는 그 뒤에는 또 그 애가 겪어야 되는 몫일 수 있고, [ 2) 계열 1: 사회의 변화 인용문 ]

그 애 인생은 또 인생대로, [ 2) 계열 1: 사회의 변화 인용문 ]

부모가 그렇게 한다면 현석이는 장차 어떻게 될 거냐,,? ... <중략> ... 제가 몇몇하게 애를 소개하고 또 내놔야 저 애도 하나의 사회인으로서, 물론 인제 뭐 자기가 주관적으로 살아가든 안 살아가든 간에 자기도 생활하는 거지,

제가 저 애를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그 다음에 저 애를 뭐 다른데 속여서 하는 건 이렇게 제가 숨긴다면은 저 애 인생은 또 다른 또 생활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느끼거든요,

P는 자녀의 ‘미래’와 그에 따른 자신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한다. 먼저 자녀의 미래에 대해 P는 ‘겪어야 되는 몫’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삶, 생활)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주관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타인과의 마주침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사건/의미를 만들어 내는 것, 고정되지 않는 비정확한 본질의 특이성으로서 소수자-되기를 하는 것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로부터 되기의 두 번째 방향이 좀 더 분명해진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그것은 오히려 차이의 체계를 고착화 시킬 뿐이다. 따라서 -되기는 차이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차원, 즉 잠재성의 차원, ‘나’라고, ‘장애인’이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는 차원으로, 즉 소수자-윤리학이라는 보편적 지평을 전제하는 소수자-되기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 IV. 짜 기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는 자폐성 장애아동의 아버지로부터 살펴본 현실성(actualité)<sup>12)</sup>의 차원을 확장하여 연구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고자 한다. 이것은 곧 이 연구에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그리고 글로써 표현되는 연구가 서로 섞이는 ‘짜기(texere)’에 대한 것이다.<sup>13)</sup> 하나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주체로서의 연구자만이 아닌 그러한 주체를 변화시키고 그 자체로 연구와 관계 맺는 여러 외부성(extériorité)들이 함께 작동한다. 예컨대 현재 이 연구에서는 투고된 학술지의 편집 양식이라는 물질적 조건에서부터 독자를 고려하고자 단어를 선택하고 표현을 다듬어 나가는 연구자의 의도가 있는 만큼이나 이와 별개로 각각의 독자가 연구와 관계 맺게 되는 측면들까지 모두가 연구와 짜여있는 외부성들인 것이다. 여기서는 그러한 외부성들 가운데 방법론상의 문제들로 연결된 부분만을 한정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 연구의 바탕이 되는 잠재성(virtualité)이 방법론의 문제로 연결되어진다. 이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주어지는 것’으로서 작용하게 되는 방법론의 한 측면을 문제화하는 것으로, ‘양과 질’이라는 나눔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양과 질의 나눔은 근래 우리 사회의 도처에서 볼 수 있는 현상 가운데 하나로 질적인 것

의 강조라는 방식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예컨대 질적 연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든지 삶의 질이라는 개념이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이를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현상들을 접할 때면 과연 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라는 자문을 하게 된다.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언급하면서 따라다니는 ‘향상’이나 ‘더 좋은’과 같은 수식어는 결국 양적인 개념이기 때문이고, 질적 연구의 경우에도 질적인 자료를 분석함에 있어서 단순히 ‘더 많이’ 언급된 것이나 주체로서의 연구자에 의해 ‘더 중요한’ 것으로 발견되는 것을 다루고자 하는 양화의 의도가 많은 경우 따라붙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물음은 이제 질적인 것의 중요성을 점차 강화하는데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질문은 양과 질 ‘그 자체’에 대한 질문, 즉 양과 질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양과 질이라는 나눔의 체계는 어떻게 관계 맺고 작동하는가라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더와 덜’이라는 문제틀로부터 벗어나 순수하게 질적인 차이의 차원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에는 그에 앞서 양과 질이 나누어지는 현실성의 차원 이전의 잠재성의 차원에 대한 사유가 한편으로 숙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방법론에 대한 개방적이면서도 엄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다음은 ‘생성’이라는 개념과 방법론의 문제를 관련지어 생각해보고자 한다.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나’는 질적 연구의 수행 근거를 새로움의 발견, 그리고 더 나아가 무언가를 발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우리나라 교육 분야에 익숙해지지 않은 후기구조주의 사유를 바탕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이러한 낯선 새로움에 대한 욕망의 한 표현방식일 것이다.<sup>14)</sup> 다만 이 연구에서 사용된 방법이 기존의 개념들을 변이(variation)되지 않은 채 그대로 이동시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부분 ‘생성’을 담아내지 못하였다. 들뢰즈는 자신의 사고 속에서 사상을 재현하는 ‘이해하는 일’보다 단편이라도 좋으니 ‘사용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한다(宇野邦一, 2001: 18-19). 현실성의 차원에서 새로운 것이 아니더라도 잠재성의 차원으로 들어가 새로운 사용 방법을 발견하고 다시 다양한 현실성의 차원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사용해 보는 생성으로서의 방법론적 노력이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시도로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형식을 다소나마 벗어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 연구의 유형(예컨대, 질적연구와 문헌연구)이라는 경계도 모호해지게 되었다. 또한 각 장들은 장의 제목에 접혀 들어가 있었던 개념들을 내용과 함께 펼쳐내는 방식으로 표현되어졌고, 그만큼 분할된 역할에 따른 각 장의 유기적인 조직화도 최소화되었다. 이에 따라 각 장이나 절에서 사용된 개념들 또한 어떤 위계적인 범주화의 질서를 가지지 않게 되었으며, 개념들은 그것이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매번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법론적 노력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 오히려 문제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반문해 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반문을 하기에 앞서 연구라는 활동, 좀 더 넓게는 사유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이며 이는 곧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삶을 바꾸는 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이해’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해는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한 표상(re-presentation, 다시-나타남)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기반을 형성하는 것으로 변화와는 그다지 관련된 것이 아니다. 그보다 삶(의 방식)의 변화라는 것은 표상이나 그로부터 기인하는 이해의 차원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그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신체적인 ‘감응(affect)’을 통해 가능해진다. 그런데 연구 또는 사유한다는 것에 대한 이러한 주제는 사실 특수교육의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특수교육 속에서 이미 항상 있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수교육은 왜, 무엇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이론과 실천의 짜여-감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특수교육 그 자체가 언제나 소수자와 다수자가 만나고 감응하는 ‘되기의 지대’인 것이다. 따라서 특수교육의 정체성은 이해의 차원에서만이 아닌 감응이라는 서로를 변화시키는 힘, 즉 고정되지 않고 일관되게 운동하는 흐름(리듬)으로서도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해와 감응 또는 이론과 실천을 대립적인 관계로 파악하는 것 또한 피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복잡하게 짜여 있는 현실의 세계에서 이론과 실천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것으로 중요한 것은 두 항 사이의 긴장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둘 사이를 오고가며 진실에 다가서는 것이라 하겠다(이정우, 2010: 49-51).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에 따른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폐성 장애아동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처음의 문제는 이제 자폐성 장애아동 아버지가 살아가는 방식에 감응하는 것으로 새롭게 바뀌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감응의 표현은 외부적인 것들과 짜여 있는 관계들을 통해 퍼져나감으로써 또다시 외부와 감응하도록 작동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그러한 감응은 타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에게 아버지의 삶(즉, 소수자)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함으로써 타자를 소수자-되기의 지대와 뒤섞이게 하는 힘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감응을 통한 되기는 일방향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한편으로 자녀와 함께 바깥으로 나가서 사회의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처럼 되기는 두 항 사이에서 이중적인 운동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다. 즉 대립하는 두 항의 문제에 대해 어느 항이 옳은지 찾아 해결하려 하거나 기존의 문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닌 두 항 모두를 변화시켜 문제 자체를 해소시키는 새로운 생성적 선(이진경, 2002b: 94-101)을 긋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일관된 하나의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생성적 선이 그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즉 항상 새롭게 강렬한 감응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표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비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존의 이해의 바깥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감응,

즉 되기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평가는 ‘내재적(immanent) 차이’ (이진경, 2002b: 176-181)의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 나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 스스로를 얼마나 새롭게 바꿀 수 있는가가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막 싹트기 시작한 특수교육에 대한 이 같은 논의(김병하, 2013)와 함께 우리의 삶과 특수교육 연구가 어우러져 한층 더 다채롭고 풍성한 변주(變奏)로 울리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1) 후기구조주의는 단일한 사유가 아니다. 후기구조주의 사유는 구조주의를 극복해 간 여러 사유들을 편의상 묶어서 부르는 것이다(이정우, 2011b: 38). 이 연구는 후기구조주의의 여러 갈래들 중 철학자 질 들뢰즈(Gilles Deleuze)의 사유를 존재론적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 2) 이러한 구별은 들뢰즈와 가타리가 『천 개의 고원』(1980)의 세 번째 고원인 「도덕의 지질학」에서 충화라는 존재론적 본질의 본질적 구별로 다루고 있는 ‘이중본질’ 개념과 관계된다. 즉 연구의 주제와 방법을 ‘내용과 형식’이라는 내용에 의해 형식이 규정되는 일반적 관계가 아닌 그 자체로 각각의 형식을 포함하는 ‘내용과 표현’의 관계(이진경, 2002a: 244)로 다루고자 함이다. 이는 ‘내용과 형식’이 결국 내용만을 다루게 되는 일방적인 관계라는 점에서 결정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내용과 표현’이라는 자율성을 가진 매개적 관계를 본질적 구별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이해로 다가서기 위해 연구라는 체계를 열어놓기 위한 한 가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내용과 표현’이라는 구별은 신체적인 것/비신체적인 것, 기계적인 것/언표적인 것의 구별로 이어지며(이진경, 2002a: 199), 이 연구의 ‘II. 표면’에서 이러한 구별, 즉 스피노자(Spinoza)에 있어 실재적(réelle) 구별은 아버지의 삶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의 바탕을 이룬다.
- 3) 들뢰즈(Deleuze, 1966)는 ‘중과 유’의 사유, 즉 범주의 사유가 곧 동일성의 사유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사유는 각각의 사물들이 자신들 간의 공통점을 가짐으로써만 차이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존재의 일의성’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들뢰즈 사유의 핵심인 ‘차이 그 자체’에 대한 사유 즉 차이의 존재론과 연결된다(이정우, 2005: 5-9). 이러한 논의를 이어 데란다(DeLanda, 2002)는 강도, 외연도, 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현대 생물학의 관점에서 ‘중과 유’의 사유를 과학적으로 논증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바탕이 되는 들뢰즈의 존재론은 곧 ‘일의성의 존재론’이자 ‘차이의 존재론’이며, 또한 ‘생성의 존재론’이라고 할 수 있다.
- 4) 이 글에서 사용된 여러 개념들 가운데 예를 들어, ‘비인칭적’, ‘충화’, ‘사건/의미’, ‘되기’, ‘리좀(rhizome)’ 등과 같이 들뢰즈(/가타리)가 독특하게 사용한 개념이거나 ‘더와 덜의 문제’, ‘가로지르기’와 같이 특정한 저자가 사용한 표현에는 인용을 달거나 필요한 경우 각주를 통해 설명을 덧붙였다. 반면 학문 일반적 용어사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설명을 생략하였다. 그러나 들뢰즈(/가타리)의 사유에 있어 일반적 용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개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접혀 들어가(함축되어, im-plication)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동시에 다른 개념들에 대한 새로운 이해이기도 하다.
- 5)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방법’이 ‘내재성’은 아니라는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철학이란 무엇인가』(1991: 58)에서 내재성(의 구도)에 대해 “그것은 방법이 아니다. 모든 방법은 경우에 따라서는 개념들에 관련되며 그런 특정한 이미지를 전제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들뢰즈(/가타리)에게 있어 내재성이란 먼저, 사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만, 스스로 사유의 대상이 되는 않는 사유의 환경이며, 또한 개념과 현실적인 것들을 생산하는 원리이기도 하다(신지영, 2009).
- 6) 일반적으로 하나의 개체는 본질(동일성)을 가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비정확한 본질’이란 기존의 존재론에 부합하지 않는 따라서 기존의 존재론을 넘어서 실체와 관계의 차이가 해체되고 사건 등을 포괄하는 좀 더 확장된 존재론의 지평에서 개별성을 보여주는 본질을 의미한다(宇野邦一, 2001: 212-213; 이정우, 2008: 206-207).

- 7) ‘고·중세, 근대, 탈근대(현대)’ 라는 철학사적 구분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동시대의 한 사회 안에는 각각의 시대에 따른 사유의 방식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이는 한 개인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양과 서양이라는 지리적 구분으로 보아도 거의 모든 면에서 이미 서양 문화를 향유하며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를 동양적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한편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서양의 사유방식을 가능한 포괄적으로 왜곡 없이 이해하여 사용하는 것이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서 멀어져버린 것 같은 동양의 사유를 현재적 관점에서 재발견하여 우리의 삶 가까이로 끌어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연구는 전자의 방향에서 서양의 사유를 가능한 왜곡 없이 이해하여 사용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유에 대한 역사적·지리적 구분을 가로질러 새로운 사유가 만들어질 수 있는 지점들을 확인하고 이어가는 것이 현대의 사유에 요청된 과제라 하겠다.
- 8) ‘preindividual’ 은 개체화되기 이전의 차원을, ‘impersonnel’ 은 ‘비인격적’ 이 아닌 ‘나’, ‘너’, ‘그’ 등 인칭의 차원으로 들어서기 이전의 차원, 즉 문법적으로 보았을 때, 부정법의 차원을 뜻한다(이정우, 2008: 13). 여기서는 가족이라는 동일성의 생성의 조건으로서 P의 삶이 가질 수 있는 무수한 방향들의 잠재적 차원을 뜻한다. 따라서 ‘나뉘기 전’ 은 시간적 순서가 아닌 논리적 차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9) 예컨대 ‘강의’ 라는 사건은 물질(교실, 사람들, 책, 컴퓨터 등)과 문화(발표하기, 듣기, 토론하기 등)가 만나는 표면에서 생겨났다가 강의가 끝나면 사라지지만 ‘강의’ 라는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즉 사건은 기존의 존재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존재로서 ‘존속’(subsister) 또는 ‘내속’(insister) 하다가 반복을 통해 ‘실존’(exister)하게 되는 잠재적 존재 양식으로 이해된다(이정우, 2008: 32). 현대 철학의 핵심인 이 사건의 사유를 들뢰즈는 『의미의 논리』(1969)에서 섬세하고 심도 있게 다루었다. 『의미의 논리』의 교육학적 해석에 대한 자세한 논의로는 김영철(2008) 참고.
- 10) 몰(mole)은 근대 화학의 통계적 연구의 과정에서 나온 용어로,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안에 같은 수의 분자를 포함한다.” 라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따라, 22.4리터의 부피 안에 들어 있는 일정 수의 기체들을 규정하는 개념이다.
- 11) 식물의 뿌리줄기를 의미하는 용어인 ‘리즘’은 ‘수목형’(樹木型)과 대비되어 사용되는 개념으로 차이, 생성, 잠재성 등 들뢰즈(/가타리) 사유의 전체가 집약되어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이를 주저 중 하나인 『천 개의 고원』(1980)에서 서론의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다.
- 12) 앞서 사건의 존재방식에서 언급되었듯이 들뢰즈의 사유에서 현실성은 우리에게 나타난, 즉 경험의 차원으로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며, 잠재성은 마치 바둑에서 수를 읽는 것과 같이 아직 나타나진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잠재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실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이정우, 2011b: 88).
- 13) 이러한 존재론적 입장은 들뢰즈(/가타리)의 ‘배치(agencement)’ 개념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연구(글)라는 관점을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책(livre)의 사유를 벗어나 텍스트(texte)의 차원을 발견한 데리다(Derrida, 1967)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 14) 실상 후기구조주의 사유가 낯설기만 한 것은 아니다. 후기구조주의 사유의 몇몇 갈래들이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어지는 가라는 문제가 한편으로 제기되는데 다만, 다른 문화를 거쳐 간접적으로 다루어짐으로서 왜곡되고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과 사유를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정우(2011a: 427-454)와 이진경(2002a: 44-46) 참고.

## 참고문헌

- 김병하 (2013). 회통(會通)·체(體)·개벽(開闢)의 한국특수교육론.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4(3), 307-315.
- 김선영 (2008). 한국가족학회지의 가족연구 경향 분석. **가족과 문화**, 20(4), 143-182.
- 김영철 (2008). 들뢰즈의 「의미의 논리」에 나타난 ‘반-효과화’로서의 교육. **교육인류학연구**, 11(1), 107-145.
- 김예랑 (2012). 자녀양육역할의 6개 영역과 관련하여 정신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의 돌봄 경험에 대한 연구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6(2), 1-28.
- 김진희 (2004). 특수아동 아버지의 욕구 및 관심사. **발달장애학회지**, 8(1), 109-116.
- 신지영 (2009). **내재성이란 무엇인가**. 서울: 그린비.
- 이정우 (2005). 들뢰즈와 ‘존재의 일의성’. **비평과 이론**, 10(2), 5-9.
- 이정우 (2008). **천하나의 고원 -소수자 윤리학을 위하여**. 경기: 돌베개.
- 이정우 (2010). **개념-뿌리들 01**. 경기: 산해.
- 이정우 (2011a). **객관적 선형철학 시론: 담론의 공간과 가로지르기**. 서울: 그린비.
- 이정우 (2011b). **사건의 철학: 삶, 죽음, 운명**. 서울: 그린비.
- 이진경 (2002a). **노마디즘 1**. 서울: 휴머니스트.
- 이진경 (2002b). **노마디즘 2**. 서울: 휴머니스트.
- 宇野邦一 (2001). **도올루즈 流動의哲学**. 이정우, 김동선 옮김 (2008). **들뢰즈, 유동의 철학**. 서울: 그린비.
- Ansell-Pearson, K. (1999). *Germinal life: the difference and repetition of Deleuze*. 이정우 옮김 (2005). **썩트는 생명: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 서울: 산해.
- DeLanda, M. (2002). *Intensive Science and Virtual Philosophy*. 이정우, 김영범 옮김 (2009). **강도의 과학과 잠재성의 철학**. 서울: 그린비.
- Deleuze, G. (1964). *Marcel Proust et les signes*. 신동욱 옮김 (2004). **프루스트와 기호들**. 서울: 민음사.
- Deleuze, G. (1966). Renverser le platonisme(Les simulacres). *Revue de Métaphysique et de Morale*, 71(4), 426-438. 박정태 번역 (2007). **들뢰즈가 만든 철학사** (pp. 23-54). 서울: 이학사.
- Deleuze, G. (1969). *La logique du sens*. 이정우 옮김 (1999). **의미의 논리**. 파주: 한길사.
- Deleuze, G., & Guattari, F. (1980). *Mille plateaux: Capitalisme et schizophrénie 2*. 김재인 옮김 (2001). **천 개의 고원: 자본주의와 분열증 2**. 서울: 새물결.
- Derrida, J. (1967). *De la grammatologie*. 김성도 옮김 (2010). **그라마톨로지**. 서울: 민음사.

An ontological understanding of a father of  
a child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 Special education and post-structuralism methodology

**Kim Hyoung Jun**

Kongju National University

**Kwak Seung Chul**

Kong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is written to understand a father who has a child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Deleuze's thought, one of various branches of Post-structuralism, is used as a method for understanding. Hence each chapter is constructed by the concepts of deleuze's thought.

In chapter 1, the scientific study which tries to obtain answers to a given problem is discussed by using the concept of 'problematization'. And then the reason why a father who has a child with disabilities is selected as a way of flight from the scientific study is clarified. Also to connect these logical problems, the concepts of 'involuntary' and 'event/sense' are presented as a method by which the problems are constructed. And as a addressing 'becoming-minority' in practical context of study, consequentially this study is came to the experimental writing which articulate participant's life in itself. In chapter 2, within a concept of 'surface' on which matter and culture meet, a father's life as a field of genesis of events which construct a life and serialization and stratification of events is understood. In chapter 3, the way of life which the father found and made from his life is studied through the concept of 'becoming-', and expanding his case to universal dimension, direction in which 'becoming-' advances is explored. In chapter 4, finally, by using the concept of 'text', a methodology working by externality of study connect with the concepts of 'virtuality' and 'becoming', the direction in which educational study as experimental writing advance is presented.

**Key Words** : autism spectrum disorders, father, family,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post-structuralism, Deleuze

논문 접수: 2013. 11. 05 심사 시작: 2013. 11. 10 게재 확정: 2013. 12. 06